

高度産業社會에서의 學生運動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李 光 周
(全州大 師範大 學長)

오늘날 일부 意識化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우리의 學生運動도 단순히 정치적 내지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高度 産業社會로 진입한 이 땅의 轉換期的 社會像과의 관련에서 심층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1968년 5월, 파리의 이른바 '학생혁명'을 절정으로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 서유럽·미국·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격렬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이들 각국이 처한 특수성, 특히 고도산업사회가 공통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서 민족적 독립이나 국가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후진국에서의 학생운동과는 다른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근래 이 땅에 있어서도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 학생투쟁이나 4·19의 반독재적 투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학생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야흐로 고도산업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전환적 변혁과 깊이 관련된, 그만큼 단순히 정치적 내지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복합적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의식층'의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오늘날의 학생운동을 이렇듯 이 땅의 전환기적 社會像과의 관련에서 인식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1968년의 프랑스 5월학생운동을 중심으로 '70년대 전후 선진 제국에서 전개된 학생운동의 특징을 그 시대적 상황과의 맥락 속에서 밝힘으로써 이 땅의 학생운동을 둘러싼 문제성의 본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II. '巨大한 轉換' 속의 세대간 갈등

19세기 후반기의 제 2차 산업혁명은 文明史的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술-산업사회의 출현을 촉진한 결과 오늘날 현대인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환의 시대란 전통적인 것이 와해되고 기성질서가 새로운 것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는 위기적

인 동요의 시대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추구되는 것은, 그 정당성이야 어떻든, 전통적인 것보다도 새로운 것 또는 연속성보다도 비연속성 그것이다. 변혁의 시대에 특징적인 이러한 현상은 따라서 당연히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세대(generation)’란 대체로 ‘동일한 시대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한 세대는 대개 30년을 말한다. 세대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연령의 차이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자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동질성이나 일체감이 면면히 이어지고 공유되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경우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 그리고 서유럽의 경우 그리스도교와 시민적 휴머니즘이 그것을 도와 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날 칼 만하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 속에 살고 있다. 현대의 혼란과 위기적 상황은 첫째로는 심각한 세대적 갈등 내지 단절이 불고온 사회 성원간의 연대의식 부재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1930년대에 이미 사람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를 ‘전시대가 뿌린 씨앗을 거두어 들이는 세대와 전시대의 개념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세대’의 둘로 나누었다. 연령층의 차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이 아닌,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의해 구별지어지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세대 논의는 正體意識(sense of identity)의 분열과 파탄이라는 위기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부자지간의 세대 갈등은 근대문학이 즐겨 주제로서 다루었듯이 모든 ‘전환시대’적인 공통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도 그것이 오늘날처럼 심각했던 때는 일찌기 없었다. 리스만(D. Riesman)은 자신의 저서 『대학혁명』(The Academic Revolution, 1968)에서, 19세기의 청년들은 연장자에 반대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 권위의 타당성에는 회의를 품지 않았던 데 반하여 20세기에 와서는 그 권위의 타당성마저 날로 실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틈이져 문화의 분리와 독립이 진행

되고 또 동일한 연령층의 젊은이들이 고교 및 대학에 대량으로 모인 결과 더욱더 촉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젊은 세대의 반항과 도전은 날로 격렬하고 공공연해졌으며 마침내 ‘젊은이들의 반란(the youth revolution)’이라는 심상치 않은 양상이 드러났다. ‘청년문화(youth culture)’와 특히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가 등장하였다.

지난날에는 세대간의 갈등은 아버지에게 대한 아들의 ‘반항’으로 상징되었으나 1960년대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 걸친 모든 기성적인 것에 대한 ‘도전’으로서, 다시 말해 ‘반체제(antiestablishment)’로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반체제 운동은 특히 반정부적·반국가적 도전으로서 격렬히 전개되었으니, 그것은 국가야말로 체제 중의 체제를 상징하는 존재인 까닭에서이다. 1970년대 전후의 젊은 세대는 그만큼 정치적 정열의 세대이기도 하였다.

바라클라프(G. Barraclough)는 ‘현대’를 규정하는 세 특성 중에서도 ‘국가 주권에 대한 회의와 국민적 충성심의 동요’를 제일의 특성으로 손꼽은 바 있거니와, 미상을 현대 학생의 도전 또한 첫째로는 정부와 국가에로 향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국가성은, 국가간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한, 그럼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약화시킨 세계 정치-세계경제-세계(국제)주의라는 현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없지 않으나 특히 권력 체계로서의 국가를 일관하여 비판한 근대 反抗科學(Gegenwissenschaft) 곧 사회과학의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知的 혼란을 쌓아 왔다는 사실에 보다 깊이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아들들은, 국가를 규범으로서 생각한 아버지의 세대와는 대조적으로 통치자를 戲謔化하는 풍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세대간의 이질성은 정치관에서 가장 날카롭게 나타난다.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 서독에서는 부친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청년의 수가 겨우 4%에 불과했으며 86%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젊은 세대의 반항적 특성은 사회 부조리나 위기의식, 그리고 특히 이데올로기와 결부시키면서 점차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띤다. 惰念과 무책임한 心惰偷理가 그에 가세함은 물론이다.

이제 우리들은 1968년 5월의 파리 학생운동을 통해 산업사회에서의 학생운동의 특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Ⅲ. 대학의 前近代的 현실

역사상의 큰 사건이 거의 다 그렇듯이, '1968년의 프랑스혁명' 혹은 '5월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1968년 봄 파리의 학생운동도 그 시작은 사소한 일에 있었다.

5월 3일 파리 근교의 소르본느대학 낭페르 분교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 남녀간의 대학 기숙사 방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소동을 일으켰다. 이 소박한 요구에서부터 유발된 동맹휴학은 그 후 약 천여 명의 파파 학생들이 대학 교실에 침입하고 교수실까지 걸거하는 한편 '제국주의 투쟁에서의 학생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24시간 동안이나 계속하는 사태로 확대되었다. 그러자 정부당국은 즉각 학원 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낭페르의 사건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약 6천여 명의 작파 '활동가' 학생들에 의해 학원 폐쇄에 항의하는 집회가 소르본느에서 열리게 되었다. 교실 등으로부터의 철거 권고가 학생들에 의해 거부되자 학장은 경찰력의 개입을 요청, 대학 구내에 경찰이 투입되고 농성 학생들이 밀려 나왔다. 그러자 소르본느 주변의 學生街인 라틴區에 학생 약 2,3천 명이 집결, 밤 1시까지 경찰 기동대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항의집회·항의데모가 거듭되면서 데모학생의 수는 2만에서 5만으로 불어나고 각 학부의 교수가 가세하고 노조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사르트르, 계랑 등의 지식인들이 깊은 관심을 내보이게 되는 등 학생운동은 날로 확대되어 마침내 5월 10일의 '바리케이트의 밤'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 단계에서의 운동의 주체는 '일반' 학생들로 되어 있었다. 그처럼 많은 학생들이 운동의 대열에 참가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의 결함도 큰 원인이 되었는데, 당시 학생들은 학교 시설의 정비와 강의의 大量化 및 바칼로레아(대학입학 자격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제도에 대한 불만과 졸업 후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 따위가 겹쳐 불만이 쌓여 가고 있었다.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된 남녀학생의 자유로운 기숙사 방문 문제는, 중세의 수도원에서나 있었던 음직한 남녀관의 '위선적' 도덕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반발의 표시였거니와, 대학은 대학대로 그 제도나 운영 등 많은 점에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일레이다.

낭페르의 항거에 앞서 '대학제도의 위기'가 프랑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대형 교실에 3천여 명이나 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서 행해지는 '전문적인' 강의, 게다가 학생수의 폭발적인 증대(프랑스의 대학생 총수는 1900년에 5천 명, 1920년엔에는 4만 5천 명을 헤아렸던 것이 1960년대 후반에는 60만 명으로 증가되었음),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구태의연하고 빈약한 시설, 학생수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비해 대학의 수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으니 학생들은 11시에 시작되는 강의를 듣기 위하여 아침 8시에는 교실에 들어가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국립 종합대학 23개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파리대학의 학생수는 15만 7천 명으로 프랑스 전체 학생수의 30%에 해당되며 학생운동의 중심인 소르본느의 문학부만도 4만 명에 달한다.

5월 소묘의 요람인 낭페르의 넓은 땅에 1964년 파리대학의 분교가 새로운 모델로 신설되었을 때, 이제 이상적인 조건하에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교수들은 기뻐하였다. 그러나 4천여 명이었던 학생수는 2년 후 1만 6천여 명을 넘어서고 말았다. 학생수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비하면 시설의 확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지부진한 것이었다.

학생수의 급격한 증대현상은 곧 많은 졸업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시 그것은 곧바로 학사실업자가 양산되는 요인이 되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국립 종합대학, 국립 전문대학,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수재 코스트 유명한 고등사범학교는 국립 전문대학 즉 그랑제콜에 속한다. 그 밖의 일반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1966년의 경우 10%에 불과하였다.

1967년 한 해만 하여도 대학·고등학교 졸업생 중 수만 명이 일자리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학생들을 불안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했고 결국 과격한 정치운동에 투신케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 학생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소르본느에서 자기 심리학과 시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두 학생은 “우리들은 학생운동가는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소르본느에 입학한 지 4년이 되는데 입학 당시 교수 한 사람에 학생 25명 정도의 강의였던 것이 지금은 50명, 심지어는 대강당일 경우 3천 명일 때도 있다. 교수는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시간이 되면 곧바로 나가버린다. 학생들끼리의 대화마저도 없어져 가고 있다. 문학부만 하여도 학생수는 4만 명. 이쯤 되면 취직자리가 있을 수 없다. 부득이 중도에서 임시고용 교사가 되는데 봉급은 고교 졸업생과 같다. 5월 소요에서 우리들은 투석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적으로 폐모를 지지하였다. 그것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문명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바칼로레아를 비롯한 각종 시험제도의 가혹함도 학생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온 지 오래였다. 프랑스의 시험제도가 얼마나 엄격한가는 ‘배를 가라 앉게 하여 유능한 자만을 구조하는 방식’이라고 꼬집는 세명반으로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 밖에도 마치 중세 질드사회의 마이스터를 상기시키는 소수의 年老한 대학관료들의 수중에 맡겨진 대학운영권 문제도 데모의 한 요인이 되었다. 1253년에 창설된 파리대학은, 그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 현대 테크놀로지사회의 진보에 발맞출 수 없는 구조적 부조리에 신음하고 있었다. 한때 베스트 셀러로 유럽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아메리카의 도전』의 저자 슈라벨(S. Schrabel)도 20세기 후반기의 공업기술시대에 역행하는 프랑스 및 유럽사회의 보수적 특성 특히 그 교육제도의 전근대적 성격을 갈파한 바 있거니와, 확실히 고등교육의 문제는 고도 산업사회 최대의 이슈로서 프랑스는 물론 당시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도 국가 ‘내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비들(Beadle)은 시카고대학 총장 재직시 대학

을 가리켜 ‘변화하는 조건에 순응하는 데 필요한 진화가 불가능한, 그래서 다칠내 소멸한 恐龍의 운명’에 비유한 바 있다. 분명, 대학의 급격한 비대화 현상(미국의 경우 1913년에 동일한 연평균에 대한 대학생의 비율이 13%였던 것이 '60년대에는 50%에 달하였다. 심지어 1968년의 경우 1주만에 하나 꼴로 대학이 전립되었다.)은 知的엘리트주의에 대신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바람직한 현상을 실현한 반면, 고등교육의 교양주의적 이념을 무산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교육 부재 현상과 전문지식의 空洞化를 초래하였다. 대도시 같은 인상을 풍기는 이른바 멀티버시티(multiversity)로 화한 대학 비대화 현상이 몰고 온 구조적 부조리 중에서도 학생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할 점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의 부재 현상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교수들은 19세기 이전에 있어서는 학자보다는 ‘성직자’적 소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학문적 성과보다도 사회적·도덕적 역할에서 보다 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이래, 뉴만(J.H. Newman)이 지적하였듯이, 대학은 ‘교육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실용을 위한 지식’의 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수는 자기의 전공에만 관심을 갖는 전문가가 되었으며 학생들 또한 미래의 전문가를 지향하여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

현대의 권력기구나 생산체계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현실은 대학의 무규범적, 가치의 부정부적 상황을 조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간에 연대의식이 없어진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이른바 ‘고독한 군중’으로 화하게 하였다. 버클리대학은 이미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학생의 규율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거니와 이러한 교육포기 현상은, 18세기 이전 유럽 대학의 학문적 僧院의 성격이나, 교수회의 기능이 주로 학생의 도덕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 19세기 하바드대학의 정신과는 꺾이나 대조적인 것이라 하겠다.

교육제도의 전근대적 맹점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당국도 오래전부터 그 개혁을 고려하여 왔다. 1966년 6월에는 이른바 ‘후세이案’이 나왔

다. 이 개혁안의 골자는 대학에서의 일반교육의 생략·대학입학 선반계의 개혁·중등교육에서의 長短 두 과정의 분리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개혁안도 각계의 석자층으로부터 대학의 테크노크레티화·엘리트화를 초래하고 전문직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교육제도에서는 지식은 억압의 성격을 띠기 마련이고 그 결과 지식의 '수익자'는 노동자로서 사회 속에 통합되거나 혹은 경제·사회체제의 결합에 봉사하는 기술산업요원으로서 편입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프롱드』지는 학생테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知的 활동의 폭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기구의 현실, 대학운영의 결정권이 행정당국에 장악된 데서 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부당국의 미봉책, 이것들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정부당국의 처유책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정부 방안과는 차이를 달리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고 그 모색의 과정에서 그들은 대학이 지닌 모순이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격렬한 투사로 변신해 갔던 것이다.

IV. '바리케이트의 밤', 그리고 그 論理

1968년 5월의 프랑스 학생운동은 학원 문제에서 출발하여 대학을 점거하고, '학생권력' 또는 이른바 '지속적인 異議'를 내세움으로써 사회 전체의 변혁을 지향했던 운동이었으며, 고도산업사회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학생운동의 전형이었다.

60여 곳의 바리케이트를 파리 도심에 출현시킨 5월 10일의 '바리케이트의 밤' 이래 학생운동의 주체는 일반 학생들(테모에 참가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5% 내지 10%를 차지하였다)로부터 선동학생들로 옮겨갔다. 이들 '한 줌의 분쟁가'들은 이데올로기와 투쟁경력으로 무장된 전문적 학생운동가들이었다. '바리케이트의 밤'에는 프랑스 全國學生聯盟(UNEF)을 비롯하여 고

등교육 직원조합, 고교생 등 약 3만 명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의 테모 테일은 파리의 도심을 누비고 포도를 파레치고 소르본느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소르본느대학 학장의 호소에 의해 대학당국과 콩방디(Cohn Bendit)를 비롯한 학생대표들간에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타협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경찰기동대가 투입되어 최후탄에 의해 바리케이트에 진을 쫓던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그 밤의 장시간에 걸친 충돌로 학생측은 4백여 명이 부상당하고 4백 60명이 체포되었다.

체포 학생의 즉시 석방, 라틴구로부터의 경찰철수 및 학원의 세계 등을 내걸고 계속된 투쟁은 점차 그 양상을 달리하여 정치운동으로 에스컬레이트되어 갔다. 이와 같은 확산의 배후에는 학원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일반 학생들의 에너지를 교묘히 동원한 '학생운동가'라 일컬어지는 과격한 의식층(그들의 수는 전체 학생의 1% 내지 2%로 추산되었음)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5월의 학생운동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약 5만의 가입자를 헤아리는 좌파 통일사회당계의 '프랑스 전국학생연맹'이다. '전학련'은 1907년에 결성된 프랑스 유일의 전국적인 학생조직으로서 '대학 경영의 공동관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5월 학생봉기에는 '전학련'과 교원조합이 주요한 몫을 하였으며 그 밖에도 신좌파에 속하는 트로츠키스트계, 친중공계, 카스트로주의 신봉자들의 조직(이 조직들은 모두 1968년 6월 12일 정부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체되었다)과 공산당계의 'UNC' 및 보수파의 '프랑스 학생전국동맹'(FNEF)도 활동하였다. 5월의 파리를 뒤쫓은 붉은 깃발, 아나키즘의 흑색 깃발, 베트콩의 깃발, 쿠바의 깃발 등이 상징하듯이 운동에는 처음부터 일관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한 학생운동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운동은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갖가지 세력이 공존하였다.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 약 10명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다이내미즘, 전술적 감각,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만을 지닌 체로 앞장섰

던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콩방디, 제스마르(Geismar) 및 소바제(Soub Ageot)이다.

드라마 ‘파리의 5월’의 주인공 콩방디는 작은 키에 붉은 머리털, 푸르고 부명한 눈동자의, 로빈 훗 같은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 유태계 독일인인 그는 결단력과 모험심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의 행동가요, 의식화된 아나키스트였다.

한때 프랑스 전체를 마비 상태에 빠뜨린 총파업의 시발점이었던 낭페르 소요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콩방디와 함께 학생테모를 전투적인 방향으로 유도한 인물은 ‘전학련’의 부의장 소바제였다. 그에 의해 ‘전학련’은 5월 봉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내었다. ‘전학련’과 함께 운동의 주도세력이 되었던 교원노조의 지도자 제스마르는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기성정당 및 기성조직을 부인하는 철저한 극단주의자였다. 이들에 의하여 원래 대학 문제에 국한되었던 일반 학생들의 순수한 부르짖음은 반체제적인 정치운동으로 화하고 파리 도심에는 그들의 우상인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게바라의 초상화(10년 전 파리 좌익학생들의 우상은 사르트르와 까뮈였다)와 각종의 깃발들이林立했던 것이다.

“우리들은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지 학생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시 학생운동가들은 되풀이하여 선언하였다. 협상의 조건(학생의 즉시 석방, 라틴구로부터의 경찰 철수, 학원 폐쇄 해제)을 학원 문제에 국한시키면서 그들은 소르본느를 점거하고 대학관리위원회를 조직, 소르본느대학을 ‘자유대학’이라 부를 것을 선언하였다. ‘사소한’ 개혁 따위는 처음부터 그들의 노리는 바가 아니었으며 대학의 구조 개혁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근본적인 변혁을 그들은 쟁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5월 13일 파리에서는 약 백만을 헤아리는 학생,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 대열의 선두에는 콩방디, 소바제, 제스마르가, 그리고 대열 안에는 좌익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끼어 있었다. 이 날을 계기로 소르본느는 학생과 노동자들에 의해 재점거되었으며 그 후 2개월간 ‘학생권력’ ‘문화혁명’ 등의 구호가 요란스레 프랑

스 전국을 뒤흔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미셸 뷰틀의 「동란」이라는 시를 통해 당시 학생들의 심경을 그 일단이나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 우리들은 따먹고 싶다

저식이란 나무의 저 열매를.

그것을 저렇게 쇠사슬로 가두어 버리고 단지 담너머로나 엿보게 하던서

우리들 마음이 끌리도록 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헬멧을 쓰고 곤봉을 휘두르는 저 허위의 천사들도

이제 우리를 그 파실로부터 떼어놓진 못하리니.

그렇다면 ‘학생권력’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미국의 한 학생운동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튜던트 파워란 단순히 대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학의 결정 그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소바제는 ‘학생권력’을, 공장을 노동자 손에 넣는 ‘노동자 권력’과의 관련에서 생각하여 “대학을 학생 손에 넣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들은 결정권을 요구한다.”이 부르짖음은 라틴구에서부터 파리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메아리쳐 갔다. 대학은 이제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사회혁명의 기지로 화하였다. 소르본느와 낭페르의 구내 여기저기엔 다음과 같은 낙서들이 나붙었다.

“학내의 민주화를 추진하자.”

“혁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시협=굴종, 승진·출세=위계적 사회”

“우리는 모두가 독일의 유대인이다.”

“사랑은 혁명이요, 혁명은 사랑이다.”

“드디어 상상력이 권력을 잡았다.”

“여기 나는 영원한 행복의 상태를 선언한다.”

“신도 주인도 없다. 내가 신이다.”

“우리들은 요구한다. 구조에 예속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봉사하는 구조를.”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던 과격파 학생들은 이제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하는 데모 크라시'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같은 전위적 주장에는 현대의 억압적 체제에 대한 '결정적 거부'를 강조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에다가 프로이트 사상을 혼합한 마르크스의 신좌익 이론은 유럽의 학생운동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현대의 학생운동은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이 강하거나 특히 自由베를린대학을 중심으로 서독 학생운동을 주도한 '사회주의 독일학생동맹'(SDS)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지향적이었다.

SDS의 멤버는 1천 5백여 명을 헤아렸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사회학이나 심리학, 혹은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다. 그 지도자인 두뤼케(R. Dutschke)는 마르크스 이론의 열렬한 신봉자로서 永久革命을 주장,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 학생과 대중을 '의식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두뤼케 이론과 SDS의 활동에 대한 서독 대학생의 반응은 지지가 27%, 무관심이 26%, 반대파가 44%로 나타났다. 서독 학생들의 대다수는 SDS의 혁명 이론에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태도가 벌어지면 과격파에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전유럽에 걸친 공통 현상이었으며, 미국 일본 등지에 있어서도 공통된 현상이었다.

"나의 선조는 바스티유 공격에 참가하였다. 나의 체내에는 혁명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외치며 학생들은 데모대에 가담하였다. 과격파의 강령이나 선술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들은 군중적 情念에 자신을 맡겨 버리고 군중속의 일원으로서 어깨등무한 순간 그리고 목이 터져라 하고 구호를 외치는 순간, 쌓였던 소의 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에로스적인 흥분까지도 맛볼 수 있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참여(participation)'의 체험 속에서 살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노라고 토로한 데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참여'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V. 存在論的 물음을

'학생 정치'와 '학생 권력'이 거리를 펼쥔던 정치의 계절이 저물어 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청년문화'운동이 대두되었다. '청년문화'는 언뜻 보아 비정치적인 인상을 짙게 풍기나 그러나 기성의 체제와 가치관에 기초를 둔 일반문화와의 구별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 본질로 하여 그것은 '반문화'(counter-culture)'적이며 '반사회'적이며, 또 '반체제'적이기 마련이다.

'청년문화'의 한 상징인 히피(Hippy)는 그러므로 '혁명의 아들'에 뒤이은 고도산업사회의 庶子이다. 히피는 도시문명 속에서도 '自然兒'이고자 원하고 '혁명의 아들'은 물질주의의 풍조 속에서도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맡기고자 한다. 그들은 있지 않은 것, 있을 수 없는 것을 탐내며 현실로부터 이탈하고 현존하는 것을 거부한다. 敎授無用의 대학을 주장하고 일부일처제에 기초를 둔 가족제도의 폐지를 인간해방의 제일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들의 기형적 이상주의는 이데올로기의 맹목적 盲從의 결과이거나 그들의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반항' '정체 불명' 혹은 '역사의 휴지통에 버려질 쓸모없는 젊은 녀석들(obsolete youth)'이니 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경우도 적지 않다. 긍정적 평가가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프랑스의 한 유력지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학생 문제에 관한 위원회는 '70년대 전후의 학생운동을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대학 개혁운동'(university reform movement)'이라고 평가하고 학생들의 의식과 사회의식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 밖에도 서독의 역사가 존트하이머는 SDS를 평하여 '중도적 자유주의의 전투적 휴머니즘'을 광범위하게 형성함으로써 과격한 학생운동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들의 적극적인 민주화 요구'는 서독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과격파의 규탄의 표적이 되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하버마스 교수도 학생운동이 지닌 '과격한 개혁주의가 이룩할 수 있는 계통성'의 역할을 긍정하였다. 긍정적 평가는 지식사회에서뿐만이 아니었다. 파리의 5월 소요가 한창일 때 드골 대통령은 질서에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학생들의 불만을 ‘자연스러운 것’ 이라고 말하고 대학제도의 근본적 개혁 및 그를 위한 교수와 학생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민 전체의 ‘참여’에 의한 ‘참여의 사회’ 건설을 역설하였다. 드골의 약속은 같은 해 10월 11일 국민의회를 통과한 ‘대학기본법’에 의해 지켜졌다. 이 법안 제정에 앞서 뽀을 교육장관은 소바제, 게스마르 등 5월의 투사들과도 끈기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바람직한 知的 풍토는 선진 여러 나라에 있어 공통적이었 거니와 가장 보수적인 로마 교황청에서조차도 ‘학생운동에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 그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70년대 이래 학생운동·대학 문제·젊은 세대의 의식과 행태 등을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적 이론화의 움직임이 인문·사회 제과학의

전문가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새로운 학문의 장르로서 개척되었다. 미국의 립셋 및 알트바하(P.G. Altbach), 서독의 하버마스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는 그 대표적 보기라고 할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우리 학원가에 있어서도 지난날의 학생운동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이른바 ‘의식화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는 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 학생들이 우리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전환의 시대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사회계약론』과 『에밀』, 마르쿠제와 프롬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1970년대 전후 선진 제국의 학생들과 동시대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지나친 정치성이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경계하면서도 우리는 그 동향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